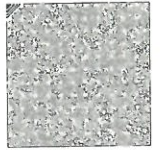


시울 주보

제2419호 2022년 10월 30일(다해)

연중 제31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38(37),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 지혜 11,22-12,2

화답송 | 시편 145(144),1-2,8-9,10-11,13ㄷ-14(㉔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
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
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
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
는 누구라도 주님은 불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
시네. ◎

제2독서 | 2테살 1,11-2,2

복음환호송 | 요한 3,16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 루카 19,1-10

영성체송 |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
리이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 ‘벌받은’이 아닌 ‘사랑받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당에 다니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뭐 하러 귀찮게 성당에 나가냐?’라고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당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죄 중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죄 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에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하느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단한 능력으로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느님과 세상에 죄를 짓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기운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생기지만, 나쁜 기운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사람과 좋지 않은 일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일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는 그것을 별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만하길 다행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제2독서인 테살로니카 2서에서도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인 루카 복음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찍었던 자캐오마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끝까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청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바로 회개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구원에서 배제될 리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믿고 힘차게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위한 벌은 잠시이지만 사랑받는 은총은 무궁하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시편 16,11)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니 당신께서 그 가르침의 물길에 항상 저희를 위한 선물을 주시나이다. 절대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물길에 저희의 마음도 담아 보냅니다. 또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영광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00년 성당> 사진전을 열었던 미술관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며 내심 전시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연락하셨나 하고 기대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서울주보에 실릴 원고를 청탁하시는데 바로 응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더 생각하고서야 수락하였는데, 워낙 글재주도 없거니와 신앙이 담긴 글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승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고 한 편 정도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5편의 글을, 2학기가 개강하는 시점에, 더욱이 10월 개인전을 코앞에 두고 쓰자니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동안 성지순례와 더불어 옛 성당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느꼈던 체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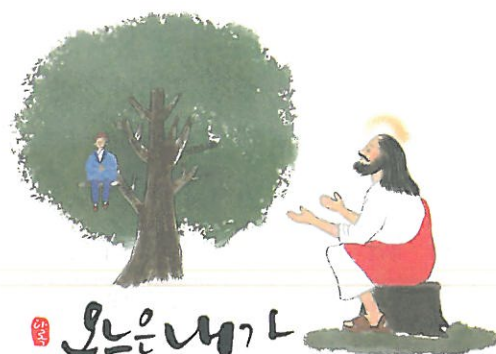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유년 시절엔 이모의 손에 끌려 성당에 나갔고, 군 입대 전엔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갔지만 음주 가무에 빠져 예비자 교리 도중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군 제대 후 대학에 다니면서 학교 근처에 있는 성당을 제 발로 찾아가 교리를 배우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리 공부하러 '나와라, 나와라' 하시던 수녀님 손을 뿌리칠 뻔 언제고 저 스스로 성당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것이겠지요. 세례를 받고, 혼인성사를 통해 가정을 이룬데다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내(안젤라)와 아이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 때까지 예비신학생 모임에 다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성당은 그저 몸만 기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연구년을 맞아 아내에게 성지순례를 제안하였습니다. 2년

간 아내와 성지를 돌리보면서 피흘려 이룬 신앙 선조들의 신앙 생활을 조금이나마 간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야 조금,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지에 세워진 성당들을 카메라로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어진 다섯 편의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화가가 고뇌 속에 작품을 끝낸 것처럼 후련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갈 수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주보에 글을 쓰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을 아마 하느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주님, 글을 쓰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신앙에, 무지한 글임에도 저를 온전히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서터를 누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주님께 드리는 고해 성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한컷 묵상



오늘은 내가
네게서 무엇을
얻었는가

류상애 아녜스 수녀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6

마리아와 성체성사의 관계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에서 성모님을 ‘성체성사의 여인’이라 칭합니다.^(53항) 성모님께서는 성체성사의 첫 시작부터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순결한 당신의 태를 하느님 말씀의 강생을 위해 봉헌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성스러운 몸을 당신 안에 모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을 당신 안에 잉태하셨기에, 이 회칙에서는 성모님을 성자께서 현존하신 ‘역사상 최초의 감실’이라 표현합니다.^(5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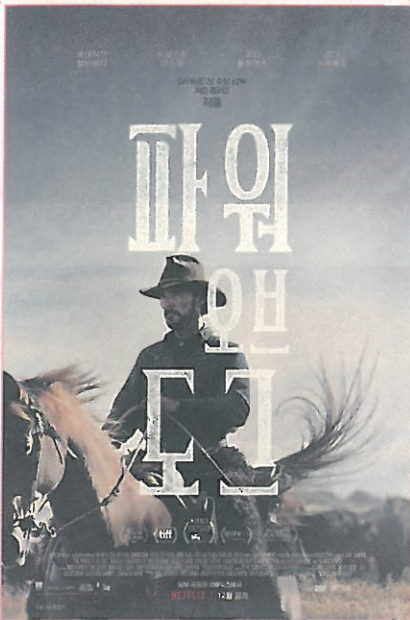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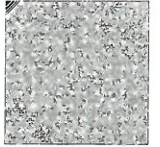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루카 22,19)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예수님의 몸은 바로 성모님께서 당신의 태중에 잉태하셨던 그 몸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몸을 잉태하셨고, 초기 교회의 성찬례에 참석하셔서 다시 몸 안으로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당신의 심장과 하나였던 그 심장을 다시 당신의 태중에 받아들이고, 십자가 아래서 겪으셨던 일을 다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56항)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요한 19,25 참조) 성모님은 참척(慘戚)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죽음으로 끊어지는 경우, 얼마나 애달프고 참담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어 ‘이해하다’(understand)는 ‘밑에’(under), ‘서 있다’(stand)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밑에 서 있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의 뜻

과 죽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곁에 끝까지 서 계심으로 인간이 겪는 고통을 가장 깊이 깨달으셨고, 예수님의 잉태부터 죽음까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하느님과 함께하고 일치하는 것인데, 성모님을 통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한평생 신앙의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철혹 같았던 십자가의 어둠을 넘어 부활의 빛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 때문에 겪으셨던 모든 고통을 하느님 뜻으로 생각하고 말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한 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몸과 마음에 받아 모시는 성체성사는 성모님의 삶과 신앙을 통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성모의 노래’(Magnificat) 중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성모님이 외쳤던 성모의 노래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희망을 잘 보여줍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는 성모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께 감사(Eucharistia)와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교회와 함께 계시며 교회의 어머니로서 현존하십니다.”(회칙 57항) 성체성사는 성모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21년 감독 제인 캠피온

영화 '파워 오브 도그'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파워 오브
도그’는 시편
(22, 21)의 한 구
절입니다. 가톨

릭 성경은 ‘개들의 발’로 번역합니다. 개의 세력이라고 하든, 개의 입이라고 하든 삶에서의 공포, 목숨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란 의미입니다.

영화 <파워 오브 도그>에서 그 개는 주인공 필(베네딕트 컴버배치 분)입니다. 1920년대 미국 몬태나주 서남부의 광활한 목장을 동생 조지(제시 플레먼스 분)와 함께 경영하는 그는 거칠고, 독선적이고, 강인합니다. ‘삶에 난관이 있어야 열심히 살게 된다.’고 믿는 그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들을 경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지와 결혼한 미망인 로즈(커스틴 던스트 분)와 그녀의 아들인 열여섯 살 소년 피터(코디 스미트 맥피 분)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작은 식당 겸 술집을 운영하던 가난한 로즈를 재산을 노린 ‘꽃뱀’ 취급을 하고, 종이꽃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창백하고 섬세한 피터를 여자에 같다고 조롱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오와 억압은 집요하고 영악합니다. 필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상대에게 잔인한지 알고 있습니다. 상스러우면서도 약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언어, 차갑고 오만한 행동으로 의사였던 로즈 전남편의 자살, 로즈의 음주, 피터의 신체적 허약함을 멸시합니다. 로즈와 피터에게 그는 입을 벌리고 맹렬히 달려드는 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파워 오브 도그>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는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랐다.”는 피터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화가 피터의 소망대로 ‘엄마의 행

복’으로 끝날 것이란 사실을 압니다. 비록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필이지만, 마지막 주인공은 소년 피터가 될 것이란 예상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입니다. 필이 저속한 언어, 노골적인 적대감, 싸늘한 침묵으로 로즈와 피터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수록 더욱 조급해집니다.

피터의 선택은 ‘억압과 혐오’가 빚어낸 악행에 대한 은밀하고 완벽한 ‘복수’의 여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를 위해 피터는 의대에 진학하고, 피터에게 동질성을 발견한 필의 눈빛에 증오가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피터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의학적 재능과 목직한 책과 학교에서 배운 사실(탄저병)로 달려드는 개의 먹잇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감정과 오만과 착각에 빠진 개는 그것을 덥석 물입니다.

필은 피터에게 “장애물을 없애가는 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장애물은 동생을 빼앗아 간 로즈이지만, 피터에게 장애물은 사랑하는 엄마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필입니다. 이제 그 개는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피터가 죽었습니다. 시편에서의 소망대로 피터는 가장 소중한 엄마를 ‘개들의 발’에서 구했습니다.

피터는 복수나 심판이 아닌 ‘어떤 희생’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립니다. 과연 그 희생으로 엄마가 실존적 구원과 행복을 찾을까요. 영화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고 몽뚝한 침묵으로 끝납니다. 피터 역시 증오와 복수에 매달린 또 다른 ‘개’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로마 12, 17, 19)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팔리움 특징

“돌아오는 11월 7일에 정순택 대주교님의 팔리움 수여
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교황님께서 지난 6월 29일
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대주교님께 팔리움
을 수여해주셨는데요. 그때에는 상자에 담긴 팔리움을
말 그대로 수여만 해 주셨고, 이번 수여 미사를 통해 관
구 내 주교님들과 교구들이 보는 앞에서 대주교님께서
착용하시게 됩니다. 팔리움이 무엇이길래 이런 여러 단
계의 절차를 통해 수여와 착용을 소중하게 진행하게 될
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팔리움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
지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러분도 이미 관구 제도를 교회 내 호칭을 통해 엿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관구의 중심 교구를 대교구라고 하고, 대교구의 교구장을 대주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관구의 중심인 서울대교구의 교구장이 정순택 ‘대주교’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서울대교구와 더불어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가 산하 교구들과 함께 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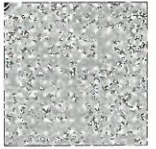
교회법이 규정하는 관구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구 내 교구들에 대해 신앙과 교회 규율이 정확히 준수 되도록 감독하며 남용이 있으면 교황님께 알리고, 관구 내 교구장이 교회법적 순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서 승인받은 이유에 따라 순시하며(교회법 제436조), 경우에 따라 교구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제421조 2항, 제425조 3항) 또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별법으로 규정된 특별한 임무와 권력을 사도좌에서 받을 수도 있으며(제436조 2항), 관구 내 교구장 다수의 동의 아래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며 개최장소, 개최 기간들을 결정합니다.(제442조) **이렇게 교회법이 정하는 규범에 따라 대주교, 관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관구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식이 바로 팔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리움의 이 같은 상징성에 따라, 대주교 착좌 이후 3개월 이내 팔리움을 교황님께 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청원이 수락되어 팔리움 수여 미사에서 팔리움을 착용함으로써 비로소 관할 구역 내에서 모

! 팔리움이 무엇일까요?

팔리움(Pallium)은 교황님과 대주교님이 어깨에 착용하는 전례 복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로는 옮길 말이 적당하지 않아 원어인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리움이 중요한 것은 팔리움이 교황과 관구장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팔리움의 착용만으로도 입으신 분이 교황이거나 관구장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팔리움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면 관구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관구는 대교구가 중심이 되어 산하의 여러 교구와 함께 이루는 우리 교회의 행정 단위입니다. 관구로 묶임으로써 인근의 여러 교구가 인적,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할 수 있고, 교구장님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근 지역의 교구들이 결합한 것이 관구입니다. 대교구 산하의 여러 교구가 모여 관구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서울대교구의 경우 의정부, 춘천, 인천, 대전, 평양, 함흥, 수원, 원주 등의 교구와 함께 서울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



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님은 작년 12월 8일에 착좌하셨고, 규정에 따라 팔리움을 교황님께 청원하신 후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6월 29일에 바티칸에서 수여 받으셨으며, 돌아오는 11월 7일에 서울관구 내 다른 주교님들과 교구민들이 보는 앞에서 착용하시게 됩니다.

! 팔리움은 어떻게 생겼나요?

정확한 생김새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출처: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팔리움은 어깨를 둘러싼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폭 4~6센티미터의 흰색 양모 띠이고, 양쪽 끝은 가슴과 등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작은 십자가로 장식되어 있는

데, 가슴과 등의 끝부분은 검정 비단으로 단을 대어 감싸져 있습니다. 또한, 가슴과 등과 왼쪽 어깨 부분에는 보석이 박힌 브로치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팔리움은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어깨에 짊어졌던 것을 상징합니다. 팔리움의 생김새는 이 그리스도의 어린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팔리움은 실제 어린양의 흰 양털로 만듭니다. 또한, 가슴과 등 끝부분의 검은색은 어린양의 발굽을 뜻하며, 가슴, 등, 왼쪽 어깨 부분의 브로치 장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힌 못을 상징합니다.

! 팔리움과 어린양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팔리움은 관구장의 관할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전례적 휘장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동시에 길 잃은 양과 자기 양 떼에게 생명을 주는 착한 목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의 성화에서는 어깨에 어린양을 둘러맨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

는데, 어린양의 양털로 만든 팔리움을 대주교님이 어깨에 메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 어린양의 양털이야말로 교황님과 일치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신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려고 애쓰는 대주교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의 성미술의 전통 속에서 어린양과 함께 표현되는 성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성녀 아네스입니다. 아네스 성녀는 하느님께 약속했던 순결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현재 로마의 나보나 광장에 끌려나와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팔리움은 아네스 성녀를 기리는 전통 속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 로렌초 수도원의 수녀님들은 직접 기른 어린양 두 마리를 교황님께 봉헌합니다. 이 어린양들은 매년 성녀 아네스의 축일인 1월 21일에 성녀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 아네스 성당에서 교황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산타 체칠리아 수도원의 수녀님들이 축복 후에 방금 깎은 양털로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팔리움을 제작하게 되지요. 새로 팔리움을 수여받으신 정순택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우리 한국 교회의 대주교님들이 각 관구에서 우리 신자들을 잘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보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원고의 내용은 유튜브 가톨릭튜브 '알려드립니다'에서도 다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교회의 2022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 ① '군인 주일'과 추석 연휴가 겹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군인 주일'을 기존의 '10월 첫째 주일'에서 '10월 둘째 주일'로 옮기기로 함.
- ②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의 교서 '개정된 교회법전 제6권 (Recognition Librum VI, 2022년 4월 26일)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 조항제66조 제항의 우리말 번역문을 승인.
- ③ 2031년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과 2035년 한국 천주교회 초대 교구장 소(蘇) 브뤼기에르 주교 선종 200주년을 앞두고, 소 브뤼기에르 주교의 시복을 서울 대교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 ④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의 청원인으로 박선웅 요셉 신부(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총무)를, 공동 연구자로 정시문 시몬 신부(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를 임명.
- ⑤ '첫영성체 관련 정보'(날짜, 장소, 집전자) 기재 항목을 추가한 '세례성사 대장'(수정)과 '세례성사 대장'(수정)을 토대로 마련한 '첫영성체 증명서'(한글, 영문) 양식을 승인. 한편,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22년 9월 6일)는 사목 문서 양식(주교회의 2015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가운데 일선 사목 현장의 요청이 가장 많은 성사 증명서 3종(세례성사 증명서, 견진성사 증명서, 혼인 증명서)의 영문 양식(수정)을 승인.
- ⑥ 한일주교교류모임 25주년 기념 자료집 '함께 걸어온 25년: 친교와 일치의 여정'을 2022년 11월 15일에 발행하기로 함. 한국과 일본 주교회의는 제25회 한일주교교류모임이 2022년 11월 15일~17일 일본 도쿄 대교구에서 개최될 것을 예상하고, 교류 모임의 개최 시기에 맞춰서 24차례 모임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의 발행을 준비해 왔음. 제25회 한일주교교류모임이 2023년 11월 14일~16일로 연기되었으나, 양국 주교회의는 계획대로 2022년 11월 15일에 2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행하기로 함. 한편, 한일주교교류모임 25주년 기념 자료집 발행을 기념하여, 양국 주교회의의 의장 주교, 한일주교교류모임 담당 주교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가 2022년 11월 15일(화)에 열릴 예정.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한일주교교류모임 담당인 옥현진 주교, 유경춘 주교, 장신호 주교가 참석할 예정.
- ⑦ 2022년 8월 15일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로 제출한 세계주교신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를 전국 교구와 언론에 배포하기로 함.
- ⑧ 성 베드로 대성전 외부 벽감에 설치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조각상(대리석 성상)의 제작 비용을 모든 교구가 함께 지원하기로 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해(2020년 11월 29일~2021년 11월 27일)를 마무리

하며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기억하고자, 유홍식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 봉헌 의사를 밝혔고, 교황님의 승인을 받아 현재 성상 제작을 진행하고 있음.

- ⑨ 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와 주교회의의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선출함(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강 주교 | 주교회의의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 위원회 위원장: 옥현진 주교)
- ⑩ 교구별 성인 유해 안치 현황을 공유하고 성인 유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① 16개 교구에서 주교회의의 사무처로 제출한 교구별 성인 유해 현황 자료를 교구에 전달. ② 성인 유해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되 교구에 신고하고, 개인이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교구에 인계하도록 함. ③ 유해 확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유해의 진정성 여부와 외국 성인의 유해 확인 증명서 발급 여부는 교황청 시성성 훈령 「교회 유해 진정성과 보존」에 따라 각 교구에서 교구장과 교구장 대리가 정하는 것으로 함.)
- ⑪ 교황청 복음화부(장관 직무대행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는 2025년 해년의 거행 준비를 위하여 지역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며, 해년 거행의 책임을 맡은 교황청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와 협력할 수 있는 각국 주교회의의 연락 담당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한국 주교회의의 연락 담당자로 주교회의의 사무국장 신우식 신부를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에 알림. 2025년 해년의 표어로 '희망의 순례자들'(Pilgrims of Hope)을 선정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에게 2025년 해년 준비의 책임을 맡기셨고, 해년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들이 포함된 칙서를 발표하실 예정. 한편, 세계복음화부서는 해년 공식 로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공식 로고를 2022년 6월 28일에 발표함. 참고로, 2025년 해년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로고도 게재되어 있음. 주교회의는 2025년 해년과 관련한 세계복음화부서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안내할 계획.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31일 유영근 요한 신부(43세)
- 1954년 11월 5일 김피득 베드로 신부(47세)
- 1984년 11월 1일 최창정 요아킴 신부(47세)
- 1993년 11월 1일 최석호 바오로 신부(73세)

교구정월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내일생의 치유 피정'

때, 곳: 12월2일~4일(2박3일), 아론의 집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곳: 매일 첫째주(화) 11월1일 · 12월6일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규방공예로 창조의 삶' 조규희 수녀 개인전: 1전시실
서금희 개인전: 2전시실
김창현 '꿈꾸는 길, 산티아고' 사진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26일(수)~31일(월)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11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11월1일(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제: 노인사목팀 담당 사제
문의: 02)727-2385 노인사목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강연회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관련하여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탈시설화와 최중증고령 요양돌봄 서비스
강사: 임상용 수사(작은형제회, 발달장애인 시설 애자람)
때: 11월4일(금) 오전 10시30분
곳: 서울대교구청 5층 501호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학술 심포지엄

주제: 시노달리타스 '제 3천년기 교회의 길'
때, 곳: 11월5일(토) 10시~18시, 명동대성당 코스트 홀 / 주최: 신학과 사상학회, 통합사목연구소
문의: 02)740-9731 신학과 사상학회

성경통독 11월 피정(사목국)

내용: 요한계시문 / 지도: 조창수 신부
때: 11월2일(수) 13시~17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회비: 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문의)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1월3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운상 차장 신부(해외선교 봉사국) /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1일(화)~25일(금) / 3개월 수업(12월~2023년 2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설기전문	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겨울학기	양상분	그레고리오성가(남 · 여) · 성악(남 · 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1만원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직장인	11월6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1월7일(월) 13시30분~16시30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2022'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청년 Hello	삶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피정 11월(일)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기도 2022	청년 누구나 / 문의: 02)727-2031 고 크리스티나 수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특강

강좌신청: 네이버폼(<https://naver.me/F43G973>)
대상: 신자 및 일반인(신청자 250명)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27-2126
1) 신앙특강 '영성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다'
때: 매주(금) 오후 2시~4시

11월4일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면 주님이 보인다	신달자(시인)
11월11일	봄이 오면 쌓인 눈들이 녹고 너는 나타나리라(김수환 추기경님 말씀)	이상용(방송인)
11월18일	우리가 인생에서 용기를 갖고 계속 도전을 하는 이유	한비야(구호전목가)
11월25일	시를 통해 하느님 손 끝에 닿다	정호승(시인)

2) 최대한 신부님과 함께하는 예술을 통해 찾아가는 우리의 영성
때: 매주(목) 오후 7시30분~9시

11월10일	메모리아(memoria): 기억의 동반자인 예술
11월17일	멜랑콜리아(melancholia):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되는 길과 예술
11월24일	오티움(otium): 좋은 삶을 위한 여가와 예술

인준단체 알림

모임

씨튼젊은이 피정 '무엇을 찾느냐?'

대상: 남녀 젊은이(미혼) / 041)733-2992 씨튼수녀회
때, 곳: 11월5일(토)~6일(일), 영성의 집(논산)

미혼 여성을 위한 개인 주말 피정

곳: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주최) 본원(사당동)
문의: 010-5920-6367 기헬레나 수녀

비대면 심리독서모임 / 문의: 010-7241-2236

때: 12월 매주(월) 14시~17시 / 대상: 수도자
주최: 톡포교교베네딕도수녀회대구수녀원

프라도수녀회 젊은이 만남

때: 11월6일 14시~18시 / 대상: 40세 미만 남녀
곳: 프라도수녀회 본원(구로구 고척로 52길 68-6)
미사 있음 / 문의: 010-2205-1856, 010-2976-1856

노들담 청년 기도모임(그해,19-45)

때, 곳: 11월12일(토) 17시~18시30분, 노들담수녀원
(인천 계산동) / 대상: 19세~45세 청년 신자 20명
문의: 010-3930-6730 노들담 수녀회

서울대교구 성령새신봉사회 위령성월대회

때: 11월6일 13시~17시(미사 16시) / 문의: 02)867-7900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43·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 정류장 하차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생정)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11월12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8차	11월11일(금)~19일(토)	문의:
제109차	12월2일(금)~10일(토)	061)373-3001,
제110차	12월30일(금)~2023년 1월7일(토)	010-3540-9001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첫토요일 신심미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10월31일~12월5일 매주(월) 9시30 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첫토요일 신심미사	11월5일(토) 9시30분~12시, 가 톨릭회관 3층 / 내용: 켈기도, 미사

11월 가정선교회 행사

미사와 생수 준비(성전 내 생수 외 음식 섭취 금
지), 중식 개인 준비, 방역수칙 준수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가정선교회 20주년 기념 대피정	11월1일(화) 11시~17시, 명동대성 당 대성전 / 정순택 대주교, 황창 연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첫토요일신심미사	11월5일(토)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윤민재 신부, 이정순 수녀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때, 곳: 11월7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강의·미사: 안규도 신부 / 문의: 010-9074-6527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말씀 피정: 11월24일(목)~27일(일), 도미니코 피
정의 집(주최, 형성) / 문의: 010-3340-0201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11월5일(토) 16시30분~18시30분, 가톨릭회
관 205-2호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새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새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시간·미사

때, 곳: 매주(목) 23시20분~24시50분, 미리내성
지 갯세마니 동산(우천시 103위 시청기념 성당)
성시간 순서: ① 성심의 메시지, ② 양팔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③ 성시간 미사 / 문의: 031)674-1251
지향: ① 세계평화, ② 교회일치, ③ 죄인회개, ④ 성직
자·수도자 성화, ⑤ 낙태죄 배상, ⑥ 한반도 평화통일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다함께 성가들' 발성교실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미나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입학 모집

대상: 초5~고1 / 단기 1년 또는 장기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 주최: 그
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 학교법인

가톨릭노동장년회 풍물모임 '풍물림'

생활 스트레스, 풍물로 날리자
때, 곳: 매주(수) 19시, 노동자목회관
회비: 5만원(수시 모집) / 문의(접수): 010-3239-9308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수요일반 14시·토요일 오후반 14
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2023년 인천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모집

접수: 11월14일(월)~24일(목) / 모집학과: 조형예술학
과, 그리스도교미술학과, 디자인콘텐츠학과, 간호학과
문의: 032)830-7022 송도국제캠퍼스

가톨릭상지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11월7일~21일
입학문의: 054)851-3021(www.csj.ac.kr) 입학홍보처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유아, 특수, 직업특수, 진로진학,
평생, 한국어 / 모집: 10월31일(월)~11월13일(일)
면접: 11월25일(금) / <https://ged.catholic.ac.kr>
문의: 02)2164-4787·4176·4173

한국외방선교회 성서인문학 강좌·후원회 미사

대상: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분
때, 곳: 11월2일(수) 15시~16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4시, 소성당 / 문의: 02)3673-2528

서울대교구 14지구 '성경 강화회'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 '공동선'에 대하여
4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의: 이기우 신부 / 문의: 02)816-2961 흑석동성당
때, 곳: 첫모임 11월2일 오전 11시(일반 신자)·
오후 7시(직장인), 흑석동 천주교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영성강좌

주제: 신비가(Mystic)에게 배우다
강사: 신소희 수녀(성심수녀회, 영성신학과 그리스
도교 신비주의 전공) / 회비: 15만원
때, 곳: 11월8일·11월15일·11월22일·11월29일 13시
30분~15시30분(총4회), 수녀원(용산구 원효로) 강의실
문의(접수): 010-9099-2337(www.jesumaum.org)

모집

개포동성당 첼로 오케스트라 관현악 전공자 모집

접수: cafe.daum.net/caelumorch / 010-2239-9463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대상: 60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접수: 11월30일까지 / 문의: 010-2657-0951

성 김대건 성가단 하반기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 문의: 010-4197-7441
때, 곳: 매주(수) 19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문의: 010-5759-4861

오디션: 11월19일 13시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1곡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공지 참조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
적 삶을 살아가는 남녀 평신도 / 11월30일까지 접수
문의: 010-6449-8250, 010-9572-8282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1월2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순절평화의미사 11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11월3일(목) 11시(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1월4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故 차동업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추모 미사
 때, 곳: 11월12일(토) 오후 3시, 미래사목연구소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11월5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군중교구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대상: 수도권지역 유가족, 군 및 일반신자 / 02)749-1921
 집전: 서상범 주교(군중교구장) 외 군중사제단
 때, 곳: 11월4일(금) 11시, 국립현충원(동작동) 내 현충관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때, 곳: 11월4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갯세마니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온전한 사랑' 말씀의 치유를 바라는 신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곳: 11월3일 19시~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윤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11월2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영유아 복음화 간담회

주제: 본당 영유아 복음화 간담회
 때, 곳: 11월5일(토) 14시~15시30분,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 참석자들에게 선물 증정
 문의: 010-5480-8908 이 크레센시아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영유아교육분과)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심집(공동생활가정) 입소어르신 모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곳: 파주시 하우고개길 425(운정역 근처)
 시설운영: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문의: 031)945-5036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상담·검사: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대상: 20~30대 성인 / 문의: 02)3147-8814
 상담비: 대학원 수련생 상담 1회기 당 5천원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교육 및 피정

청소년·청년·예비자·성인 위탁 및 자체 교육·
 피정 / 문의(접수): 032)465-0835
 침묵·대월 기도 피정: 11월11일~14일·12월9일~18일

개인 피정(상주기도의집-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대상: 침묵과 고요 가운데 기도와 쉼이 필요한 분
 곳: 수녀원 내(경북 상주시 만산4길51번지)
 문의: 010-9092-3930 이 마리아네스 수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가톨릭성가페스타 2022 행사

가톨릭성가를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의 축제
 때, 곳: 11월19일 10시,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
 주최: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다음카페: 가톨릭성가페스타 / 010-5245-2848 심준보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라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햇살사목센터 후원회 미사

지향: 후원자와 그 가정, 자녀, 손자녀를 위한 미사
 때, 곳: 매월 첫번째(토) 11월5일 오후 3시, 햇살 사목센터(혜화로2길20) / 문의: 02)744-0840

가평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31)589-0102
 요양보호사(주간·야간 선택 가능) / 기숙사 1인실

한국 카리타스 직원 모집

분야: 국제협력, 후원관리, 홍보 업무 1명(1년 계약직)
 11월15일(화)까지 이메일(caritas@cbck.or.kr) 접수
 홈페이지(www.caritas.or.kr) 참조

가톨릭신문사 신입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영상기자, 광고홍보사원
 접수: 11월21일(월)까지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제기동성당 방호원(관리인) 모집

대상: 세례받은 신 건강한 분(연령 무관) / 업무: 미화, 방호, 시설관리 등(시설 관련 면허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1월4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2476,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사로 31 제기동성당) 및 이메일(jegidongsd@catholic.or.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재단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 11월1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재단(인사팀) 시설관리 직원 모집

분야: 시설관리장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가능한 분(기계설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1월6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11월6일(일) / 성소 피정	수녀원(평창동)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월6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10-8563-687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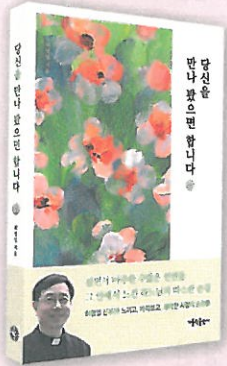
2022년 11월 추천 도서

마음의 온기를 한층 더 높여 줄 영성 서적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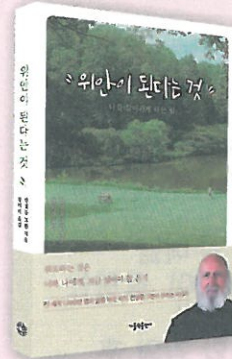


당신을 만나 뵈었다면 합니다

살면서 마주한 수많은 인연들,
그 따스한 순간을 노래하다
지나간 시간을 위로하고,
다가올 나날을 축복하는 다정한 언어들

허영엽 지음 | 16,000원

신간



위안이 된다는 것

“이제부터 어떤 것들은 새롭게,
그리고 달리 보게 될 것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안셀름 그윈 신부가 전하는 '영적 위안'

안셀름 그윈 지음 | 18,000원

출간 예정



님·밤 - 최민순 신부 시집

최고의 종교 시인 故 최민순 신부
그가 남긴 작품의 정수를 만나다
'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밤'을 노래한
아름답고 간절한 영성의 시편들

최민순 지음 | 18,000원

신간



오늘 감사 노트

성경으로 익히는 감사 습관
일상을 기쁨으로 채우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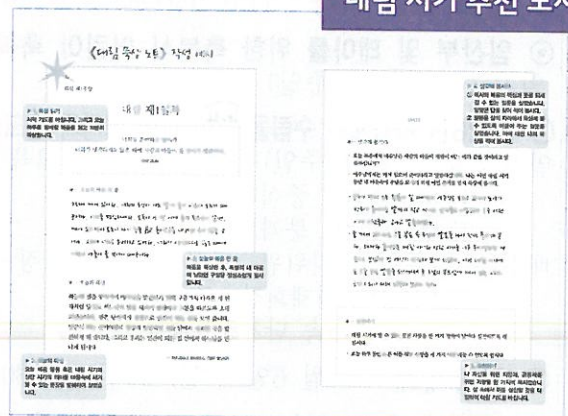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1,000원

2022 대림 묵상 노트

대림 시기를 희망으로 채우는
4주간의 묵상

보다 뜻깊은 대림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묵상 노트입니다. 이번 대림 시기에는 《2022 대림 묵상 노트》와 함께 예수님이라는 기쁨을 전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림 시기 추천 도서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7,000원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제2252(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영국(바오로) 010-8733-651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창년 20, 창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견진성사 안내

견진성사 : 12월 3일(토) 오후 3시

교리일정 : 11월 1일(화) ~ 11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대성전

대상자 : 세례받은 만 12세 이상 및 교리강의에
참석을 원하는 모든 신자

강사 : 성바오로딸 교리교육팀 수녀님

※참고도서 :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예절연습 : 11월 29일(화) 마지막 강의 후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02.323.4450)

※ 청소년 견진교리는 중고등부 교리시간을 통해
진행됩니다.※ 견진교리기간동안 화요일 저녁 7시미사는
대성전에서 드립니다.

◎ 연령회 미사

일시 : 11월 1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신중하신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위령의 날 미사

11월 2일(수)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0시 (합동위령미사)

*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을 맞아 죽은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11월 5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11월 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2023년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본당 봉사자 워크샵

일시 : 2022. 11. 6(주일) 12:00~ 소성전/교육관

12:00~13:00 중식

13:00~15:00 분과별 발표 및 토의

대상 : 사목회 상임위원, 여성구역회 구역장·반장

남성구역 형제회장·총무

제 분과 소속 단체장·총무

◎ 유아세례 : 11월 6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수험생 축복미사 : 11월 16일(수) 오후 7시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1월 17일(목) 오전 8시 40분~오후 4시 37분

사전접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3264-7970)

회비 : 일만원

◎ '볼링대회'(남성총구역주최)

지난 풋살경기에 이어 볼링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공 굴리기' 하실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11월 12일(토) 13시 30분

장소 : 뉴원일볼링센터 (주차장이 부족하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 2만원

신청 및 문의 : 사무실

◎ 청년음악회 (Re)

일시 : 11월 19일(토) 오후 6시 / 대성전

구성 : 1부 임마누엘 홀리챔버 합주단 /

2부 한푸름성가대 / 3부 이레밴드

관람 : 누구나 선착순 무료 입장

* 이 날 오후 3시 미사는 지하소성전에서 드립니다.

* 이 날 오후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0. 2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01	864 (41.1%)	826 (39.3%)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73,113,300원

◎ 감사헌금 (10월 17일~23일)

허인희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정수진 일십사만원 홍동수 일십만원

김광숙 일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진은희 일십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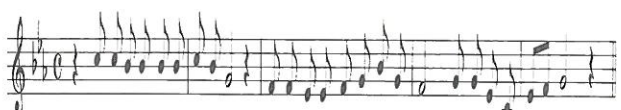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30주일)

교무금 8,181,000원

주일헌금 4,499,000원

전교주일 2차헌금 1,777,500원

입당	32	봉헌	511, 212	성체	182, 176	파견	243
----	----	----	----------	----	----------	----	-----



저의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계 당신이름을 찬미하나 이-다